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3단계 증설

800억원 투입 타이어 생산능력 40만개 확대 ... 해외 증설도 박차

한국타이어가 충청남도 금산공장에 800억원을 투입해 3단계 생산라인 증설에 들어간다.

3월2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국내 시설투자와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2011년 11월까지 800억원을 새로 투입해 트럭버스타이어(TBR) 생산라인을 증설기로 했다.

증설이 이루어지면 하루평균 1000개, 연간 40만개의 트럭버스타이어를 추가로 생산하게 된다.

앞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2009년 말까지 1992억원을 들여 하루 평균 1만2000개의 초고성능타이어(UHP) 생산을 위한 2단계 증설을 마친 상태이다.

3단계 증설이 마무리되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하루평균 6만4000개, 연간 2240만개로 대전공장(연 2400만개)에 이어 2번째로 큰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아울러 2014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억개로 늘리기로 하고 중국(2개), 헝가리(1개) 공장에 이어 제6공장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권 1곳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6공장을 세워도 4-5년 후에는 다시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미주 지역에 제7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금산공장 증설 등 신규투자로 6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2014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 5위 타이어 메이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9>